

Radical Disciple VIII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1. 제자 그리고 진짜 갈등

[마태복음 16:24]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1)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능력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능력의 삶이다. 이것은 '승리의 삶'을 말한다. 본질을 아는 삶이다. 모든 문제의 이유와 답을 찾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롭다.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된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내 삶의 고통에 대하여 눈을 뜰 때 '인생', '삶'이라는 단어가 무게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삶은 진지해진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9: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치유'를 넘어선 '회복'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완벽함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구원의 실재적 의미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즉, 내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다. 제자들의 삶이 나타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그들안에 있는 자유함을 빼앗겨 본 적이 없다. 더 나아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많은 사람의 속박과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었다.

(2) 자기 부인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의 삶을 변하게 하였을까? 그 비밀이 '자기부인'이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야 한다. '부인'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어떤 '나'를 부인해야 하겠는가? 어떤 '나'를 거절해야 하겠는가? 너무나 명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된 나'이다. 구체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를 말한다.

죄인된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습성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없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삶에 '저항'과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나'가 내 자신도 싫다. 이런 패배자의 생각의 내 자신도 싫다. 그래서 갈등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짐도 해보고 노력도 해본다. 결심도 해본다.

한계란,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잘못, 잘못된 관계, 자신의 연약함이란 벽을 말한다. 죄인된 땅에서 생산해 내는 엉겅퀴와 가시 때문이다. 토양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소산을 거두려면 수고와 노력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한다. 해결이 없다. 끝이 없다. 조금만 신경쓰지 않아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국 노력하다 지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다. 진리란 예수님 자체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토양)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 네 삶에 더 이상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불확실한 불안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도 지침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승리의 삶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하며 사는 능력의 삶을 말한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자기부인'이다.

(3) 죄인의 생각, 감정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 자기연민의 함정

죄의문제는 '연민'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거절이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연민은 완전히 자기를 상실한 거짓자아에 결박당한 상태임을 명심하라. 자기연민은 모든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것을 입혀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허무하게 한다. 숨게 만든다. 자기연민은 영적침체로 가는 게이트와 같다. 침체는 수렁이다.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연민의 상태를 주의해야 한다.

2. 십자가 위에서의 믿음

(1)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사람을 묶어버린 사탄의 권세와 결박을 풀어버린 권세이다. (생각, 감정)

[골로새서 2:14-15]

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15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14-15에 나타난 십자가의 권세는 놀랍다. 우리를 억압했던 빚 문서가 없어졌다.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0.1%의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했던 원수의 통치와 권력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다.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2) 십자가 그리고 위대한 복음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ㄱ) 먼저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처지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싶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 '아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내 연약한 의지를 말한다.

ㄴ) 복음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타락으로 인한 사람의 영적상태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때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 신앙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바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실재가 된다. 원수의 결박이 무장해제 된다.

(3)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힘

[빌립보서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한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존재이다. 헬라어 '카타람바노'는 목덜미가 완전히 붙잡힌 상태를 말한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 분이 연약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육신의 나로는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능력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다.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라.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실재이다.

* 십자가 위에 회복된 '나'를 선포하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한계도 장벽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오늘부터 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